

‘퍼머 1만원’ 아침부터 손님 만원

‘박리다매로 고물가 탈출’

30일 오후 2시 광주 남구의 한 미용실. 6개의 의자에 10명이 넘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5명의 미용사가 실재없이 가위를 놀렸고, 한 손님의 머리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손님이 자리를 잡는다. 도심 패션가에 위치한 이름난 브랜드를 자랑하는 미용실도 아닌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업소와 차별화 된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일반 퍼머와 염색 1만원, 남성·여성 컷트 각각 4000원, 3000원이다. 고급 퍼머는 2만원이고 이 업소에서 가장 비싼 상품은 2만5000원을 받는 긴머리 염색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동네 미용실의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박리다매’로 틈새시장을 노린 이 미용실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다. 처음 3개월은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에 사람들이 ‘싼것이 비지떡’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재료에 산가격을 고집한 탓에 3개월 만에 입소문을 타고 하루 100여명 이상이 찾게 시작했다. 최근에는 해남과 강진·무안에서 버스를 대절해 수 십명씩 ‘원정미용’을 오는 아침부터 부대까지 생겼다. 반년 만에 동구 장동에 2호점을 낸데 이어 올 9월이면 중국 진출까지 계획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 광주 남구 ‘박리다매’ 미용실 화제



30일 광주 남구의 한 미용실. ‘컷트 4000원’이라고 쓰인 표지 사이로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미용사의 손길이 분주하다.

가격은 3분의 1 ... 재료·서비스는 고급 전략 해남·강진 등서 원정미용 ‘아침마부대’까지 동구 장동에 2호점 내고 9월에는 중국 진출

원장 신경훈(35)씨는 “다른 미용실에서 일할 때 퍼머 한번에 3~4만원을 받다 보니 ‘이 가격이면 서민들이 한 달에 한번 퍼머 하기도 부담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손님을 모시되 비용(원가)을 줄이면 승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창업과정을 설명했다.

‘천서민 정책’ 미용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씨는 먼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들을 고용했다. 손이 빠르면 손님 회전율도 빨라지기 때문. 또 퍼머와 등을 한번에 1000만원 이상씩 대량으로 구입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그만큼 좋은 제품을 산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씨의 ‘박리다매’ 원칙에는 서비스도 빠지지 않았다. 신씨가 꼽는

서비스 제1원칙은 ‘가격 싸다고 손님 기본 상하지 않게 하겠다’였다. 손님 최모(여·44)씨는 “처음 이 미용실을 찾았을 때 손님이 하도 많아 칠관에 이름을 쓰고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며 “지금은 산 가격에 약 품질도 좋은 미용실은 이곳만 찾는다”고 말했다.

가격과파를 일으키며 손님을 불러오자 동종 업계 반발도 만만찮았다. 이에 대해 신씨는 “3년 전만 해도 광주 북구에 미용실이 한 때 1000개가 넘었던 적도 있었다”며 “미용실 포화상태에서 누군가는 들고 나을 마케팅이었고 가장 먼저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사가 된다는 소문에 신씨에게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졸을 선 사람만 4명. 하지만 신씨는 돈이 목적인 사업가에게 내주기보다는 미용실 생리를 잘 아는 미용사에게 내주고 싶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성공대열에 오른 신씨는 중국 진출을 앞두고 ‘경영마인드’도 날달랐다. 한국과 달리 중·고가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신씨는 “한국미용사를 데려간 이전 업체들은 대부분 비싼 비용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미용사를 줄이되 현장에서 중국인에게 기술을 가르쳐 비용을 줄인 한국미용업소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은 30일 자동차부품업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모기업-협력사 간 안심일터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협력업체협의회 대표인 김용구 현대하이텍 사장, 김종용 기아차 광주공장장, 송문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김재호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안심일터 만들어 동반성장”

기아차 광주공장·협력사 업무협약 ... 재해감소 함께 노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을 적극 지원해 ‘안심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반성장을 나가기로 다짐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30일 광주공장 의전관에서 김종용 광주공장장과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재호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협력업체협의회를 대표해 현대하이텍 김용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기업-협력사 간 안심일터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예방활동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사의 재해감소를 위해 모기업, 협력사, 고용노동청, 안전공단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또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모기업 안전보건 리더십을 선언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 협력사의 안전문화 자립기반을 구축을 돕고,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1년에 2회 이상 모기업-협력사 안전보건경영 기반구축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기당 1회씩 광주권 산업재해 발생 상위 협력사에 안전보건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이번 모기업-협력사 안심일터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기아차 광주공장이 협력사와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동반성장의 길을 걷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 업자와 전쟁’

1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2명은 급한 돈이 필요한 기업등에 자금을 빌려준 후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주식 담보를 확보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은 기업형 사채업자들이다.

또한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

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거액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도 포함됐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수입액을 탐욕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 대상이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3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6월 경기 어둡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6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6.5로 전달보다 4.0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7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부진(50.0%), 인건비 상승(40.2%), 판매대금 회수 지연(29.3%), 업체간 과당 경쟁(26.8%), 인력확보 곤란(26.8%), 자금조달 곤

란(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93.79 (-6.45)
코스닥지수	480.52 (-2.70)
금리 (국고채 3년)	3.58% (-0.02)
원·달러 환율	1080.20원 (-2.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익산국토관리청 본격 우기철 앞두고 영산강 사업 현장 수해 방지 나섰다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사업 현장에 대한 수해방지 대책을 나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30일 여름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영산강사업 전체 현장에 강우상황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른 상시 수해대비태세를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우예보단계를 4단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시행하고, 영산강사업현장 등 익산국토청 직원들이 24시간 현장에 상주해 위험요소를 사전 없애고 응급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량이 50mm 미만인 주의단계에는 저수로 작업 중지 및 통수 장애물 제거, 자재·장비 등 안전지대 이동 등

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경계단계에서는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취약지구 순찰, 수위 상승 관측 및 수방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또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각 발주기관별로 임시물막이, 공사용도로, 임시 가설교량 등 공사용 임시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고 보수·보강 조치하는 한편, 임시물막이 등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임시시설은 홍수기 이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김일평 익산국토청장은 “이상 강우가 내릴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규연 조달청장 방문 영산강 공사현장 점검



최규연 조달청장은 5월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 점검과 우수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최 청장은 첫날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직원과 대화시간을 갖는다. 또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 중인 광주 국립과학관 공사현장을 둘러본다. 둘째날에는 나주 승촌보 공사현장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광주·전남지역 우수 조달업체인 (주)우송산업, (주)하이코리아, (주)선테크 등을 잇달아 방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보려면?

LOSE

일반 홈페이지

WIN

모바일 홈페이지

Tip.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컴퓨터 해상도에 맞게 제작되어 스마트폰에서는 컨텐트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나,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맞게 제작하여 편리함과 시안성을 극대화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문의
062-514-1144

모바일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화된 UI설계 및 디자인을 구현하여 QR코드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자가 고객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홍보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례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는?
한국전화번호부 어플 검색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연동한 다양한 인쇄마케팅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